

04

# Style 조선일보

April 2025  
vol. 285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eason's Finest





Hermès, the endless line

# Contents

APRIL 2025 / ISSUE.285

**06\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08\_SELECTION 1** 로맨틱한 벚꽃 나들이로 설렌 그녀를 위한 위크엔드 스타일.

**09\_SHAPE OF MY TIME** 우아함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오벌, 쿠션 세이프 워치 선택.

**10\_SELECTION 2** 여유로운 주말 나들이에 스타일리시한 포인트를 더할 위크엔드 룩.

**11\_NEW WORLD, NEW TECH** 소위 Z 세대라 일컫는 디지털 제너레이션의 눈길을 사로잡는 혁신적 테크 리스트.

**14\_GETTING BACK ON TRACK!**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페어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을 비롯해 각종 문화 예술 행사가 봄처럼 솟아지는 3월, 간만에 다채로운 시끌벅적함이 도시를 채웠다. 세계 정세와 맞물린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꽤 고무적인 풍경이다.

**17\_예술가로서의 완전한 자유를 향해** 올봄 아트 바젤 홍콩 기간, 홍콩 컨벤션 센터(HKCEC)에 무리카미에게 현정하는 대형 전시 부스를 차린 루이 비통과의 20년 넘는 세월을 관통하는 브랜드 협업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 현지에서 직접 일대일 대화로 접해본 그의 면면은 예상을 뒤엎고 훨씬 더 진실하게 다가왔다.



2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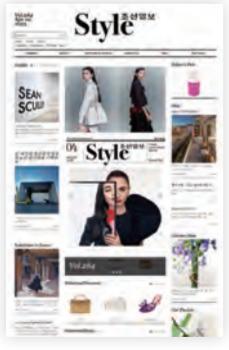


올해 오데마 피게는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하우스 오브 원더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더불어 차세대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 '캘리버 7138'을 공개했다. 혁신적인 '올인원(all-in-one)' 크라운을 도입해 모든 기능을 하나의 크라운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퍼페추얼 캘린더 시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문의 02-543-2999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ти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티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티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kr



28

08

#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chosun.com 패션 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연 stylechosun.khy@gmail.com, 윤지경 yjk@chosun.com 디자임 에디터 신정임 sj@chosun.com 디자인 나는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ns@chosun.com 이정희 j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쇄·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 GRAFF



### Like a 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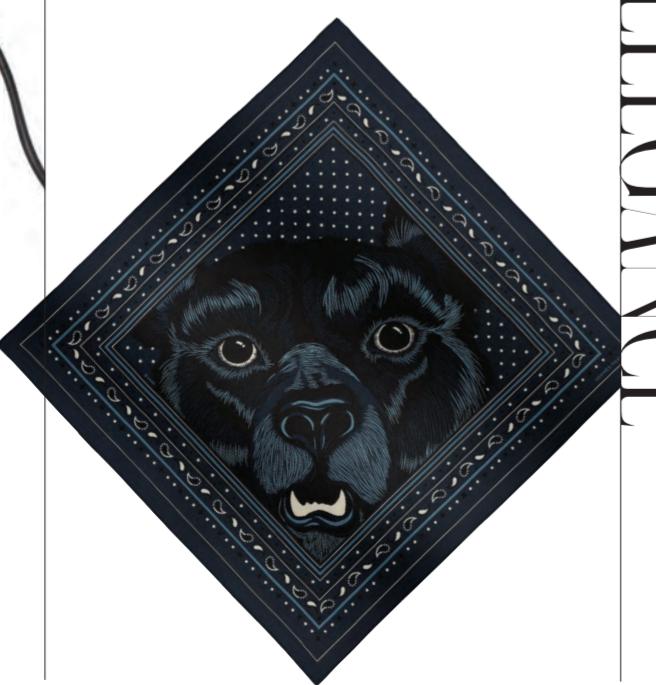
디자이너 랄프 로렌의 오랜 취미는 차(car) 수집이다. 그런 그가 클래식 카에서 영감받은 '더 랄프' 스몰 숄더백을 공개했으니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이탈리아 장인이 직접 선별한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해 유연하지만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양 사이드의 시그너처 벨트 디테일과 금속 플레이트, 가방 상단에 위치한 정성스러운 스티치의 조합으로 데일리 백으로도 손색없다. 이 밖에 넉넉한 수납력의 토트백, 포인트 백으로 활용 가능한 버킷 백 등도 출시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해볼 것. 3백60만 원. 문의 02-3467-6560

#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스카프 휘날리며

다양한 스타일과 연출법이 특징인 봄 스카프는 없어서는 안 될 패션 필수품이다. 에르메스 '그르르리' 반다나(Grrrr! Bandana)는 위트 있는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 용맹한 맹수의 모습을 반다나 스카프에 수놓았다. 영국 아티스트 앤리스 살리(Alice Shirley)가 디자인한 작품으로 동물원 속 검은 곰과 그 주변을 감싼 밤하늘의 작은 별들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와 실크 소재로 완성해 은은한 광택을 선사한다. 스타일링법도 간단하다. 주얼리와 함께 손목에 레이어드하거나, 키링 대신 가방에 묶어 장식해도 좋다. 아니면 가수 GD처럼 헤드 스카프로 활용해 트렌디한 면모를 발휘해보자. 65×65cm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 Style It Up!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한 헤어 스타일링을 선사할 헤어 디바이스 3. (위부터 차례대로)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 재스퍼 플럼 '두피 보호 모드'를 적용한 뉴럴(Nural™) 센서 기술로 헤어에 닿는 열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59만9천원대. 문의 1588-4253 바이오프로그래밍 헤어블론 2D 스트레인트

플러스 고불고불한 곱슬머리를 완벽하게 펴주는 것은 물론 탐스럽고 귀은 웨이브 헤어 스타일링도 가능하다. 특수 세라믹 소재로 제작해 고온 모드로 짧시간 사용해도 머리카락 손상을 최소화해준다.

1백40만원대. 문의 02-6349-4455 샤크 뷔티 샤크 플렉스탈일 애어 스타일러 HD435 5개의 스티일링 헤어 구성되어 스트레이트부터 블룸, 컬 헤어까지 가능하니 다채로운 헤어 연출을 시도해볼 것. 44만9천원대. 문의 1644-9245 포토그래퍼 최민영 애디터 신정임

### TIMELESS ELEGANCE



올해는 그라프의 아이코닉한 주얼리 컬렉션, 그라프 버터플라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50년이 되는 해다. 그라프 버터플라이 컬렉션은 1975년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감각이 물어나는 다이아몬드 펜던트와 함께 탄생했다. 이처럼 특별한 해를 기념해 그라프에서 버터플라이 하이 주얼리 디자인 컬렉션 캠페인을 공개한다. 런던 메이페어에 위치한 그라프 아틀리에에서 수작업으로 완성한 새로운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는 57.13캐럿의 스노 세팅 파베에 메탈드로 풍성한 곡선과 과감한 컬러감을 자랑하며 강렬하게 네크라인을 감싼다. 이와 함께 그라프의 장기인 화려하고 섬세한 다이아몬드 세팅 기술로 완성된 다양한 하이 주얼리 피스를 만나볼 수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그라프의 버터플라이 컬렉션은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욱 독창적인 다이아몬드 주얼리의 위상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의 02-2150-2320



### Cheek to Cheek!

두 뺨을 물들인 사랑스러운 징잇빛 블러시.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뷔티 쥬 광프리스드 엉팡스 #238 로즈 아흐당드 수채화처럼 투명하면서도 선명한 발색으로 얼굴에 생기를 선사한다. 8g 7만2천원대. 문의 080-805-9638 블루우 쿠션 블러시 #80트 인텍스 마시멜로처럼 폭신한 제형이 특징이며 비타민 E, 호호바 & 포도씨 오일을 함유해 들뜨지 않고 촉촉한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7.3g 4만7천원대. 문의 1644-3748 디올 뷔티 루즈 블러쉬 #271 핑크매니아 여러 번 레이어드해 풍차지 않고 부드럽게 미무리되는 베이비 핑크 컬러의 파우더 타입 블러시. 5.5g 7만6천원대. 문의 080-342-9500 구찌 뷔티 구찌 블러시 드 보페 - 치크 & 아이 파우더 러미너스 매트 #03 레이드트 핑크 콜렉션 칼라로 동양인 피부에 제격이며 치크는 물론 아이 메이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5.5g 9만3천원대. 문의 080-850-0708 포토그래퍼 최민영 인턴 애디터 김보민

## EXHIBITION



### Dream and Reflection

태국 동시대 미술의 현주소를 기할 수 있는 대규모 기획전이 열려 문화 예술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에서 4월 5일부터 20일까지 펼쳐지는 〈태국 현대미술 - 꿈과 사유〉전. 미술 평론가 박일호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전시 감독을 맡아 기획한 전시로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등을 아우르는 태국 현대미술이 24인의 작품 1백10여 점을 '꿈과 사유', 두 섹션으로 나눠 선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미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한세예술 24문화재단에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태국 현대미술 전시로 참작 작가 중 4명은 서울을 직접 찾았다. 먼저 젊은 작가 14인의 역동적인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꿈' 섹션에서는 우리나라 광주를 비롯해 세계 유수 도시에서 비엔날레 참가 경력이 돋보이는 임하타이 수왓타나쁘, 서정성이 돋보이는 피스텔 툴 회화로 눈길을 사로잡는 차야 풍 찌루랏, 페미나즘과 노동자를 향한 보이지 않는 시선을 담은 회화가 인상적인 줄리 베이커 앤드 서머가 방한했다.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이슈를 다룬 '사유' 섹션에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작가 라고릿 라파와노를 비롯해 잇짜이 인, 디센 두앙다오, 맷타라 칸란아카자이 등 중견 예술가 10인의 작업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이 중 직접 한국을 찾은 비 타곤 맷타노衩 작가는 인간의 신체 내부가 우주의 무한성을 상징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깊은 금속 조각을 채색한 평면 작업 'Within-without' 시리즈와 AI를 도구로 생성시킨 이미지를 활용한 평면 작업 등을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물었던 태국,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거나 무심히 지나쳤던 태국의 모습과 다른 진정한 태국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박일호 전시 감독의 말처럼 태국 예술가들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갖게 될 흔치 않은 기회다. 무료 전시. 글 고성연

## COLORFUL, WONDERFUL

**Bold Move**  
1962년 디자인을 바탕으로 탄생한 티파니 하드웨어 컬렉션은 변화를 이끄는 사랑의 힘을 표현한다. 브랜드 티파니가 탄생한 도시인 뉴욕처럼 이 컬렉션은 강하고 불드한 정신에서 영감받았으며 끊임없는 회복력과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하는 힘이란 1960년대 뉴욕의 변화무쌍한 에너지와 불드한 정신과도 닮았다. 1971년 출시된 '볼 앤 체인(Ball and Chain)' 유니セックス 브레이슬릿을 재해석한 하드웨어는 불드한 체인 링크, 불과 자물쇠 디자인으로 쓰용한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면서 매력을 더한다. 이어링과 링, 네크리스와 팬던트까지 다양한 제품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18K 엘로·로즈 골드와 스틸링 실버 소재로도 선보인다. 특유의 불드한 디자인으로 유니セックス으로 쓰용 가능하며 단독으로 착용할 때뿐 아니라 다른 제품과 믹스 매치해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670-1837



### 깨어나는 봄

파인 주얼리 브랜드 키린(Qeelin)이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영감받은 '울루 가든 컬렉션(Wulu Garden Collection)'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에는 핑크 사파이어, 자수정, 아코야 진주 등 다채로운 보석을 활용해 꽃이 만개한 정원의 생동감을 담아냈다. 핑크 사파이어는 따뜻한 색조로 봄의 낭만과 활력을 표현하며 자수정은 신비로운 분위기로 컬렉션에 깊이를 더한다. 또 완벽한 구형과 빛나는 광택이 특징인 아코야 진주는 우아한 감성을 완성한다. 특히 키린의 상징적 모티브인 울루(Wulu) 모티브를 로맨틱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행운과 긍정적 에너지를 전한다. 정원에서 피어나는 자연의 조화를 표현한 이번 컬렉션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모든 제품은 롯데 본점 애비뉴엘 3층 키린 매장과 갤러리아 명품관 이스트 2층 키린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05-3453



## Selection for her

로맨틱한 벚꽃 나들이로 설렘 그녀를 위한 워크엔드 스타일.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모노그램 패턴의 핑크 가죽에 아이코닉한 로고 버클로  
포인트를 준 M-Art 로레토스 벨트 145만원 MCM.

넉넉하면서 활동성을 높인 고른 소재의 가먼트 다이드  
와이드 데님 진주 34만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오픈워크 다이얼에  
핑크 러버 스트랩을  
장착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전하는 브랜드  
유니코 핑크 사파이어  
42mm 1억9천만원다 위블로.

일본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시그니처 스마일  
캐릭터가 유쾌한 감성을 더하는  
LV X TM 셀리퍼리 백 참  
85만원대 루이 비통.

클래식한 트위드 소재의 캡  
가격 미정 샤넬.

아세테이트 소재의  
코럴 컬러 버ти풀라이  
S320 선글라스 61만원  
셀린느 by 에디 슬리먼.

프레드 1800-5700 에코 1833-2611  
프레드 02-514-3721 론진 02-3479-1940 골든구스 02-519-2937  
소파드 02-6905-3390 블루리 02-6105-2120 샤넬 080-805-9628  
마이크 마이클 코어스 02-2143-1792 루이 비통 02-3432-1854  
셀린느 by 에디 슬리먼 1577-8841 끌로에 02-545-7778  
MCM 1600-1976 위블로 02-540-1356

에디터 선정임 스타일리스트 트임희영

# Shape of My time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오벌, 쿠션  
세이프의 위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위부터 차례대로) 소파드 해피 스포츠 유리한  
오벌 세이프의 루센트 스텔™ 케이스에 중앙에  
기요세 장식을 더한 실버 컬러 다이얼을 매치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무빙 다이아몬드 7개를 세팅한  
아이코닉 디자인이 특징인 오토매틱 무브먼트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90

위블로 스피릿 오브 빅뱅 카메오 힐트 파브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빅뱅 위치로 새틴 마감 및 폴리싱 처리한  
18K 금 골드에 1백6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베젤에는 4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극강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8천8백48만원 문의 02-540-1356

티파니 티파니 이터나타 워치 28mm 쿠션 세이프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163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컬러  
다이얼로 완성했으며, 아워 마커에 각각 다른  
12개의 방향으로 커팅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특별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파이에 라길리아트 토노 워치 27x38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총 약 17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86개를 세팅하고 다이얼에는  
총 약 0.7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백92개를 세팅했으며, 베젤에는 총 0.05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3개를 세팅해  
극강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자체 제작 690P 쿠온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9천만원 문의 1668-1874

까르띠에 베누아 워치 스몰 우아한 타원  
형태가 돋보이는 상징적인 위치로 핑크 골드  
케이스와 베젤에 세팅된 다이아몬드로 화려함을  
더한다. 쿠온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3천5백만원대.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정민



# New World, New Tech

소위 Z 세대라 일컫는 디지털 제너레이션의 눈길을 사로잡는 완벽한 테크 리스트. 미학적 디자인은 물론 완벽한 기능까지 겸비했다.

PHOTOGRAPHED BY YI JOO HYUK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로급 액티브 노이즈 캠슬링 활성화 시 최대 20시간 청취 가능한 실버 컬러의 에어팟 맥스 76만9천원대 애플. 문의 080-330-8877. 소리의 파동과 하늘을 가르는 구름 등 자연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완성한 월 레이어 케이스 4만9천원 그레그. 문의 1533-1321.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로, 소리의 독자적 기술을 적용한 음향 확산 프로세서를 적용해 응장한 중·저음과 선명한 고음을 재현하는 얼트 필드 1(ULT FIELD 1) 14만9천원 소니. 문의 1588-0911.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을 자랑하며 소프트웨어인 iOS 17을 지원하는 아이폰 15 프로 가격 미정 애플. 문의 080-330-8877. 새들 스티치로 말 모티브를 새긴, 스위프트 카프 스킨 소재의 맥세이프 카드 케이스 93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물방울 마이스터스틱 필기구의 블랙 보디가 연상되는 디자인이 특징이며 세계적인 음향 엔지니어 악설 그렐과 협업해 완성한 시그니처 시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MTB 03 인아 헤드폰 56만원 몽클랑. 문의 1877-5408. 247개의 LED 조명을 장착한 사파이어 글라스로 다채로운 컬러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며, 모노그램 플라워를 비롯해 하우스의 다양한 디자인 코드를 설정할 수 있는 지름 44mm 케이스의 땅부르 호라이즌 라이트 업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최대 18시간의 재생 시간을 자랑하며 수심 1m에서 30분간 사용할 수 있는 IP67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갖춘 그린 컬러 베오사운드 A1 2세대 41만9천원 방앤율립슨. 문의 02-518-1380. 스테디셀러인 디-렉스(D-Lux)의 후속작으로 출시했으며 사진 펜집 프로그램과 호환할 수 있는 DNG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라이카 포토스 (Leica FOTOS) 앱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라이카 디-렉스 8과 흑 케이스 각 2백65만원, 25만원 라이카. 문의 1661-0405. 에디터 신정임





LÄTT



홍콩을 열기로 채운 '슈퍼 마치(Super March)'

# Getting Back on Tr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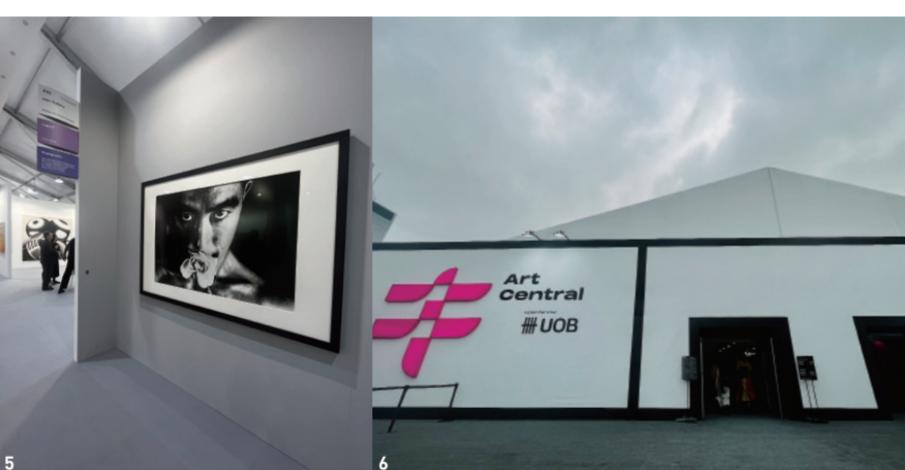
'지울 수 없는 각인을 남기는 도시(indelible city)!' 동서양의 피를 물려받은 홍콩 출신의 한 저널리스트가 지구촌을 강타한 팬데믹 기간에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담아낸 책을 우연히 보고는 곧바로 집어 든 적이 있다. 물론 지구촌의 어느 도시든 잊기 힘든 매력을 지닌 메트로폴리스로 자리매김하기를 열망하겠지만, 최근 수년에 걸쳐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뽑내는 아시아의 중추적인 허브 도시로서 홍콩을 응원하는 이들이 꽤 많았을 것 같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해마다 춘삼월이 가까워지면 엄청난 북적거림 속에서도 묘한 에너지의 미학에 이끌려 축제 같은 주간을 지내곤 했던 기억을 되살리게 됐다. 그리하여 팬데믹 기간 유난히 꽁꽁 막혔던 이 도시의 문이 열려 다시금 찾았을 때 '예전 같지 않은' 기운을 대하고 실망한 이들도 상당수였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올봄의 홍콩은 달라졌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을 비롯해 각종 문화 예술 행사가 복물처럼 쏟아지는 3월, 간만에 예년 분위기가 되살아난 듯

다채로운 시끌벅적함이 도시를 채웠다. 세계 정세와 맞물린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꽤 고무적인 풍경이다. 홍콩의 봄이 돌아온 것일까.

홍콩의 3월, 특히 춘삼월을 끼거나 앞둔 마지막 주는 문화 예술계에서 광란의 주간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을 비롯해 아트 센트럴(Art Central) 같은 현대미술 페어, 미술품 경매와 블록버스터 전시 개막, 각종 공연과 컨퍼런스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줄지어 열리고 다국적 손님들이 도시를 팔색조처럼 수놓는 역동성 덕분이다. 밀도 높은 도심에서 빽빽하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아기자기한 골목길 사이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미술계 '파피(페션 피플)'를 감상하는 재미도 쓸쓸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오래된 풍경은 아니다. 1세기 반 넘게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금융과 무역의 허브였지만, 문화적으로는 불모지, 사막 같은 수식어를 지녔을 정도. 사뭇 건조한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청조 도시'를 둘러싼 해계모니를 놓고 아시아 도시들의 자존심 걸린 경쟁이 이어지

는 가운데 2013년 스위스산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이 홍콩으로 진출한 것을 계기로 점차 변모했다. 정부 차원의 통 큰 투자와 큰손들의 후원이 이어지며 문화 예술 지향이 새롭게 치장된 것이다.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곱씹게 되는 대상, 홍콩**  
필자는 언젠가부터 해마다 3월 '아트 주간'에 홍콩으로 향하면서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트 바젤 홍콩'이라는 고정 콘텐츠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마다 참신한 '뉴 페이스'를 등장시키면서 도시의 문화 예술적 경계를 점차 확장해나갔다. 팬데믹 전을 돌아보자면, 2018년에는 홍콩 최초의 '아트 특화 빌딩'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운 H 퀸스(Hive)드 즈워너, 페이스, 화이트 스톤, 탕 컨템퍼러리 같은 유수 갤러리가 입점해 있다. 2019년에는 중앙 경찰서, 빅토리아 경찰 등 16개 정부 건물을 10년이라는 세월에 걸



1 아트 바젤 홍콩 중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 ян가디스' 섹션에서는 존 랴프먼(Jon Rafman), 리암 길리(갤러리 버튼), 허지혜(휘슬갤러리) 등의 작품 18점을 선보였다. 2 아트 바젤 홍콩 기간에 제공되는 '프라이빗 투트' 서비스. 이미지 제공 Rosewood Hong Kong 3 ABHK25에서 올해 처음 제정한 MGM 디스카비리즈 아트 프라이즈의 영예는 우리나라 작가 신민(P21 갤러리, b. 1985)에게 돌아갔다. 4 '갤러리즈' 섹션에 참가한 글레이즈톤 갤러리 부스에서 선보인 아나카 이(Anicka Yi) 작가의 조각 작품 'Thom'(2023-2024)과 평면 작업 'xbLs'(2025). 5, 6 ABHK에서 멀지 않은

처 복합 문화 단지로 재탄생시킨 장기 재생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타이쿤(Tai Kwun) 센터 등이 도시의 지평을 넓혀주는 사례였다. 전 세계적인 동면이 끝나고 '하늘길'이 다시 재대로 열린 2023년 봄은 기나긴 공사 끝에 드디어 위용을 드러낸, 아시아 최고의 거주형 아트 센터를 표방하는 대형 미술관 M+가 기다리고 있었다. 2021년 늦기를 문을 열었지만 해외 대다수 방문객들에게는 이때가 첫 만남이었다. 홍콩 정부가 공들여 구룡반도 서쪽 매립지에 세운 시주룽 문화 지구(WKCD)의 핵심인 M+가 일본 거장이자 스타 작가 구사마 야요이 전시를 대대적으로 열면서 화려한 인사를 건넸음에도 2023년 봄은 원가 경직되고 어수선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도 M+를 설계한 세계적인 스위스 건축 스튜디오 HdM의 건축가 피에르 드 와롱(Pierre de Meuron)을 만나 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소중하게 남았는데, 그는 T자형으로 교차하는 건물의 실루엣을 가리켜 온통 하늘로 치솟은 수직의 도시에서 좀처럼 접하기 힘든 '수평의 미학'이 잘 구현됐다면서 '도시의 맥이 잘 흐르도록 하는 에너지를 선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나 이듬해인 2024년 봄에는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늘 하나씩 'must visit' 목록에 보태지던 '새로운 발견'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물론 '애정하는' 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즐거웠지만). 동서양의 혼합이어서 '제3의 공간'이라 불리는 이 도시의 복잡다단한 매력에 점점 빠지게 됐기에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지난가을 긴만에 '아트 바젤' 시즌이 아닌 중추절(中秋節) 기간에 홍콩을 찾았다가 살짝 되살아나는 기운을 느꼈다. 세계 양대 경매 회사인 소더비(Sotheby's)와 크리스티(Christie's)가 홍콩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몸소 증명해 보인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다. 당시 크리스티의 아시아 태평양 본사가 지난 9월 중순 홍콩 센트럴 지역의 새 랜드 마크인 더 헨더슨(The Henderson) 빌딩으로 확장 이전하며 늘 전시와 경매를 열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선보였고, 그에 앞서 소더비 홍콩도 센트럴 지역의 랜드마크, 채터에 전천후 공간을 꾸몄다. 시장이야 주기를 타고 온갖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실제로 올봄 홍콩 경매는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다(중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 투자는 든든한 토대가 된다. H 퀸스에서 이사를 단행한 한 메가 갤러리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실적이 아주 양호한 편이라 '봉수가 적용한 것 아니냐'고 농담을 던지곤 한다"고 밝혔다. 불안감이 없지 않지만 지리적 위치와 면세 지역의 이점에 힘입은 허브로서의 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얘기이기도 했다. 올봄에는 세상이 더 혼돈에 빠져버렸지만, 어느 정도 저력을 펼쳐 보인 3월이 아니었나 싶다. 미술계만 아니라 스포츠, 음악 페스티벌 등이 어우러져 주요 호텔들이 '만실'을 외치는 광경을 간만에 목도했다. 만반의 준비를 한 홍콩에서는 이 기간을 '슈퍼 마치(Super March)'라 부르며 전략적 마케팅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홍콩 센터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인 아트 센트럴도 많은 관람객을 동원했다. 7 ABHK 홍보  
간판. 김수자 작가의 '띠도는 도시'를 보파리 트럭 2727  
킬로미터 이미지가 보인다.

8 가고시마에서 열린 사라 제(Saraj Sze, b. 1969) 개인전  
Artwork © Sarah Sze Photo by Ringo Cheung Courtesy Gagosian 9 하우저앤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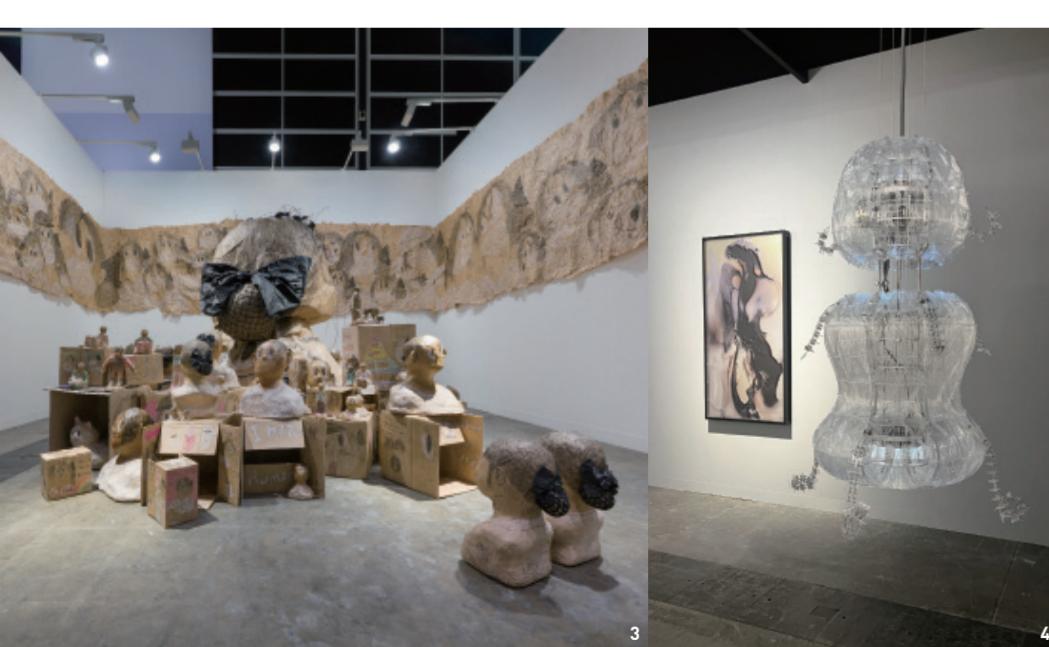
홍콩 지역의 루이즈 부르주아 개인전 모습. Louise Bourgeois, 'Spider', 2000, Steel and marble, 52.1x44.5x53.3cm.

10 소더비 홍콩의 기획전  
'Corpus – Three Millennia of the Human Body', 11 홍콩 남쪽 월척항 '아트 타운에 들어선 갤러리 포디움(PODUM) 기획전에 전시된 이에인 작가 작품 'Arm sprouting branches'(2025). 12 월척항 풍경. 13 M+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Picasso for Asia—A Conversation'* 전. Photo by Lok Cheng Image courtesy of M+, Hong Kong © Visite à Picasso, a film directed by Paul Haesaerts, Production Art et Cinema, Copyright Eyeworks Film & TV Drama

14 타이쿤에서 선보인 중국 작가 후사오위안 개인전 *'Hu Xiaoyuan: Veering'*. 15 타이쿤 내 미술관 입구. \* 1, 3, 7 이미지 제공, Art Basel Hong Kong \* 4-6, 9-12, 14, 15 Photo by 고상연

다국적 홍보와 마케팅의 전장으로 되살아난 '허브'로서의 매력

예술과 자본의 두 얼굴을 상징하는 종대한 플랫폼인 아트 바젤 홍콩은 올봄 안도의 힐을 내쉬었다. 전 세계 42개국에 걸친 2백40개 갤러리가 참여한 이번 페어는 방문객 수만 놓고 볼 때 9만1천여 명을 동원했는데, 국적으로 따지면 70개가 넘었다는 점과 나왔다. 물론 MZ 세대의 활발한 행보가 눈에 띠는 중국 본토의 큰손 갤러티들이 수직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음은 쉬이 짐작할 수 있지만 최근 수년간의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다채로운 열기와 전시장(홍콩 컨벤션 센터)이나 아니라 도시 곳곳을 타고 흘렀다. 전 시장 VIP 리운지는 다국적 미팅이 봇물로 이뤘고 예컨대 필자가 앉았던 한 미팅 테이블에는 대여섯 명이 앉았는데, 각자 국적이 다 달랐다. 내로라는 럭셔리 호텔과 바, 그리고 홍콩 미드레벨 지역의 고급 맨션 등에서 열린 '프라이빗 파티'에는 인파가 넘친 나머지 음식이 늘 번개처럼 사라지기 일쑤였다. 베를린의 아트 페어, 대만, 사르자 등의 비엔날레, 도쿄의 현대미술



3

4



13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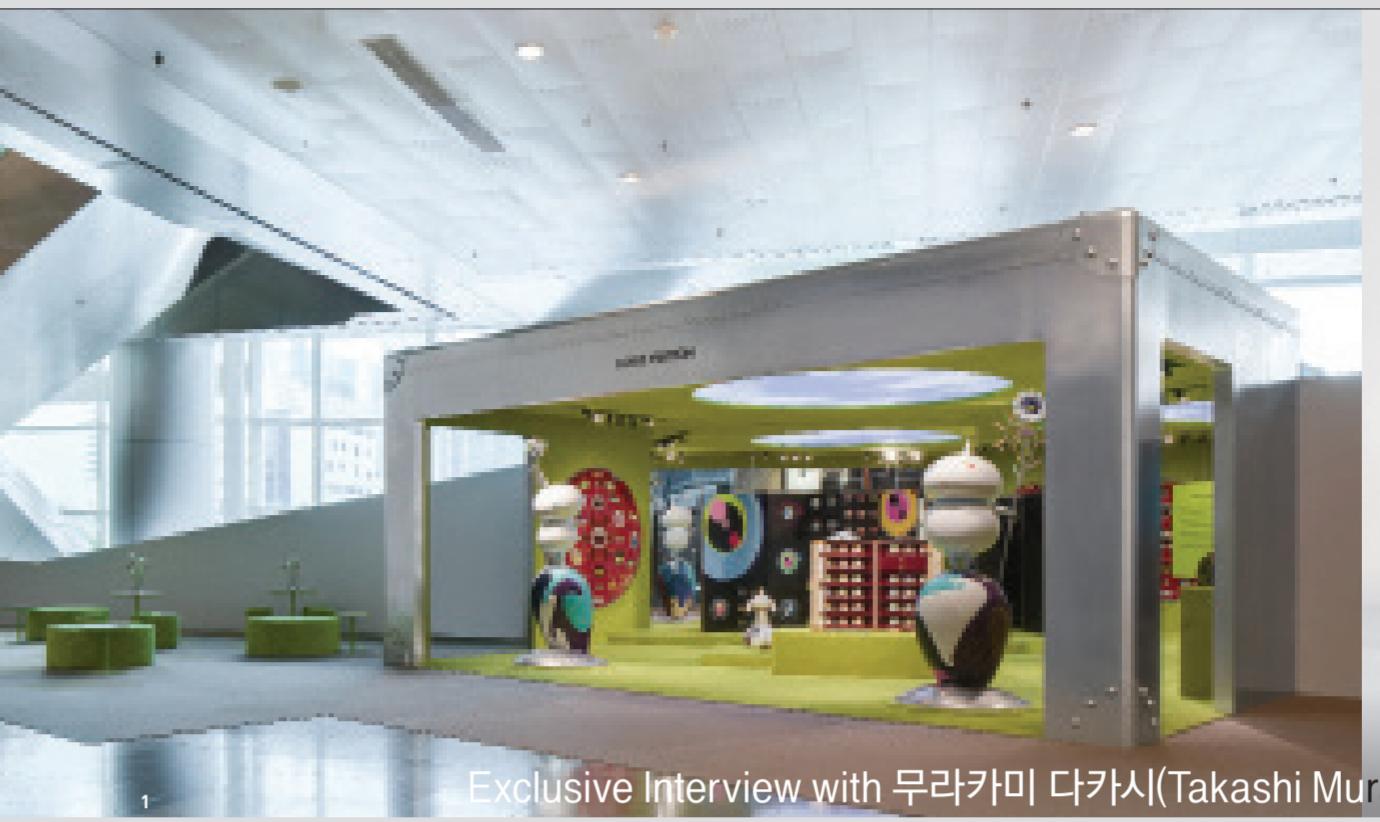
### 점점 진화하는 구룡반도와 란타우섬의 활기찬 풍경

솔직히 올해는 글로벌 미술 시장의 고군분투 속에서 악간의 '일탈'을 가미한 여정을 모색했다. 다행히 미술계는 점차로 홍콩으로 불이 돌아왔다는 반응으로 고무되는 모습이었고, 필자 개인적으로는 홍콩의 다채로운 매력을 몇 가지 더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포문을 열었던 팝 컬처 패스티벌인 콤플렉스콘(ComplexCon)으로 올해도 란타우섬에 자리한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렸다(3월 21~23일). 서울에서도 뜻데 뮤지엄 전시로 잘 알려진 뉴욕 기반의 예술가 대니얼 아샴이 예술감독을 맡고 마지막 날에는 K-팝 걸 그룹 NJZ(뉴진스)가 라이브 무대를 장식해 일찌감치 화제가 됐던 콤플렉스콘은 음악, 패션, 아트, 스토리 키치를 한데 모은 글로벌 플랫폼인데, 브랜드와 아티스트들의 '합친' 협업을 기꺼이에서 접할 수 있다(예컨대 홍콩의 인기 보이 그룹 미러(Mirror)가 론칭한 브랜드의 옷을 그의 미소 띤 설명을 들으며 살 수 있다). 아시아 최장 케이블카인 웅평360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청동 좌불상(별칭 '빅 부다')을 시야에 담을 수 있는 관광 코스로 유명한 란타우섬은 사실 홍

콩 국제공항에서 가까워 공연이나 비즈니스 미팅과 방문에도 트레킹까지 덤으로 즐기고 가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홍콩의 옛 공항인 카이탁 공항 부지에서는 올봄 제일 인상 깊었던 축제의 현장이 펼쳐졌다. 아마도 새로움을 보여주는 전력을 고민했을 홍콩이 아심처럼 칸 카드가 될 구룡반도의 '카이탁 스포츠 파크' 척률 고도가 낮아 주민들에게 스릴 어린 추억을 선사했던 카이탁 공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도시의 상징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2020년 개통된 MTR 역과 통하고 싱그러운 공원도 끼고 있는 카이탁 스포츠 파크의 꽃은 단연 개폐식 지붕을 장착한 5만석 규모의 카이탁 스타디움이다. 올봄 '슈퍼 마치의 화룡점정도' 막 문을 연 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글로벌 력비 축제인 캐세이/HSBC 홍콩 세븐스(Cathay/HSBC Hong Kong Sevens) 2025였다(흔히 '홍콩 세븐스라 불린다). 사실 력비 자체는 아시아 지역에서 대중적인 인기 스포츠가 아니지만 1976년 출발한 이 대회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상징적인 '문화+스포츠' 축제로 올해는 3월의 마지막을 생동감 있게 수놓았다. 전 세계 12개 팀이 2박 3일에 걸쳐 참가한 이 대회에는 새 스타디움 효과로 더 활기를 띠며

1~5 슈퍼 마치라 불리는 홍콩의 3월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아시아 최대 력비 축제가 마지막 주말을 장식했다. 5만석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연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캐세이/HSBC 홍콩 세븐스 2025가 28일부터 30일까지 펼쳐졌다. 6~8 홍콩 란타우섬에 자리한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콤플렉스콘은 올해 3관전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서울에서도 뜻데 뮤지엄에서 열린 개인전으로 잘 알려진 대니얼 아샴이 예술감독을 맡고 마지막 날에는 K-팝 걸 그룹 NJZ(뉴진스)가 라이브 무대를 수놓았다. 9 케이블카 '웅평360'의 크리스털 캐빈, 트레킹 코스로 사랑받는 란타우섬은 케이블카에서 커다란 청동 좌불상(별칭 '빅 부다')을 시야에 담을 수 있는 관광 코스로도 유명하다. 미끄럼틀 제공 Ngong Ping 360, 홍콩관광청 10 홍콩 국제공항 내 캐세이파시픽 '더 피어' 라운지와 리트리트(요가) 공간, 캐세이파시픽은 '락킹스라 불릴 정도로 수준 높은 미술과 휴식 시설 등 차별화된 서비스가 인상적인 더 피어, 더 워, 더 데 등의 라운지를 두고 있다.

\* 1, 5, 6 Photo by 고성연  
\* 2~4 이미지 제공 World Rugby Photo by Alex Ho and Zach Franzen \* 7, 8 이미지 제공 ComplexCon Hong Kong



Exclusive Interview with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

# 예술가로서의 완전한 자유를 향해

팬데믹 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9년 여름, 홍콩 센트럴 지역에 자리한 복합 문화 공간 타이쿤에서 일본이 낳은 현대미술계 슈퍼스타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 개인전이 열렸다. 이 전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무라카미 대 무라카미(MURAKAMI vs MURAKAMI)>라는 전시 제목 자체에서 언뜻 떠오르는 그만의 다면적인, 혹은 이중적인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스친 적이 있다. 종종 톡톡 튀는 '코스프레' 룩으로 단장한 채 등장하는, 재기와 파격이 넘치는 캐릭터지만, 우리 앞에 드러내는 이미지를 현란하게 연출하면서도 자신의 작업 세계에 대해서는 무den히 고민하는 그만의 독특한 여정이 어찌면 꽤 고단한 법에서다. 올봄 아트 바젤 홍콩 기간, 홍콩 컨벤션 센터(HKCEC)에 무라카미에게 현정하는 대형 전시 부스를 차린 루이 비통과의 20년 넘는 세월을 관통하는 브랜드 협업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 현지에서 직접 일대일 대화로 접해본 그의 면면은 예상을 뒤엎고 훨씬 더 진솔하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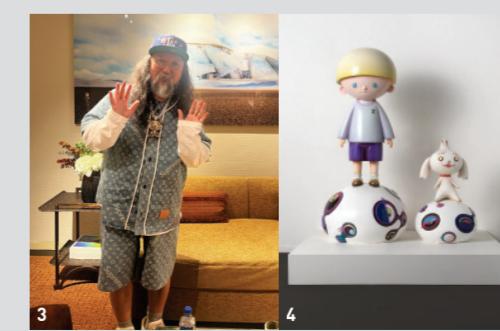
### 슈퍼스타로서의 무라카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작업 속 캐릭터를 형상화한 형형색색의 모자 밑으로 길고 구불구불하게 드리운 머리를 휘날리며 등장해 제법 과한 동작과 포즈를 취하는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 b. 1962). 그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해맑게 웃는 얼굴을 한 '꽃(무라카미 플리피)' 이미지는 대부분 점에 빛을 정도로 대중에게 친숙한 동시에 아이콘 같은 이 현대미술가가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고 하는 모습이다. 당연히 이 같은 연출은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의 소산이자 자신의 예술 세계를 나름 입증해 보여주는 축소판이기도 하다. '오타쿠'를 자처하는 무라카미 다카시는 흥청거리던 버틀 경제의 거품이 깨진 1990년대 독특한 일본 문화 현상과 미술을 결합한 '니폰 팝(Nippon Pop)'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각인 시킨 주인공이다. 고급과 저급, 전통과 현대, 예술과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경계를 해체하고 계급과 취향의 서열도 날작하게 놀라버린 '슈퍼플랫(Superflat)'이라는 독자적 개념이 그 바탕에 걸려 있다. 언뜻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게 예술이야?'라는 판잣도 곧잘 듣지만, 일본화를 전공하고 박사과정까지 밟은 그의 작업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전후 미국에 빠듯까지 물든 '심신의 뒤죽박죽' 상태에서 순수 미술과 서브컬처, 세계와 일본, 유일성과 복제성 등 다차원적으로 분열된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서 자신의 생존 조건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빼돌아진 예술로 보는 시선을 기억해줄 필요가 있다(평론가 사와라기 노이). 어쨌거나 그는 서구 모방주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로 커리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카이카이 키카이상하고 기이하다는 뜻'라는 회사이자 갤러리를 이끌며 '일본적인 것의 세계화를 향해 질주했다. 그 과정에서 2002년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던 루이 비통과 협업을 펼쳐 '만화경의 미학으로 재해석한 모노그램 패턴을 창조했는데, 잘 알려졌다시피 이 운영적 조우는 역대급 성공을 거뒀고, 브랜드와 작가 둘 다에게 커다란 '원-원'으로 남았다. 홍콩 센트럴 지역의 루이 비통 매장에서 만난 무라카미는 모노그램이 밝힌 상·하의를 입고 자신이 협업한 MLB 도쿄 시리즈 야구 모자를 쓰고 나섰다. 마침 LV X 무라카미 리에디션의 두 번째 협업이 발표된 시

1 루이 비통은 아트 바젤 홍콩에서 무라카미 다카시 전시를 개최했다. 2018년 루이 비통 차량에서 선보인 갤럭션의 일본인 '조조군과 타몬군(2003), 수수께끼 같은 스크린 작품 '슈퍼플랫 걸리피쉬 아이즈(2003) 등을 내세웠다. 또 조각, 판화, 텍스처일 작품은 물론 부스 내 '시크릿' 상영관에서 무라카미의 비디오 작품도 선보였다. 2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의 협업 20주년을 맞이해 올해 2백 점 이상의 '루이 비통 X 무라카미 리에디션'을 선보였다. 3 일본 전통 회화인 니혼화 기법과 애니메이션, SF 팝 컬처를 바탕으로 한 협업 작품으로 미술계 스타로 자리매김해온 무라카미 다카시. Photo by 고성연

4 Takashi Murakami, 'MAX & SHIMON', 2004. 5 Takashi Murakami, 'Superflat Jellyfish Eyes', 2003. Exhibition view, Fondation Louis Vuitton, Paris. 6 Flowerball by Takashi Murakami, Collection Louis Vuitton. 2020 © Louis Vuitton. \* 1, 2, 4~6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

하죠. 3백 명이 넘는 직원과 함께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회사 일에 임하다 보면 조직 내에서 소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돈의 흐름에 대해 매일같이 걱정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매우 슬프기도 하고요." 사실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개인 브랜드만 보면, 적어도 커리어나 수입 면에서는 걱정할 게 별로 없겠지만 동료들과 후배들을 챙기며 끌고 나가는 가장 같은 리더십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이 또한 그의 영리한 이미지 메이킹 전략인가 싶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가 미술계에 속한 2명의 인물에 대해 진지하게 언급했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한 명은 스페인의 '올드 마스터'인 프란시스코 고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현존하는 동시대 거장인 독일 현대미술가 안젤름 키파다. "고이는 작고하기 전 수년 동안 정신이 온전치 않았고, 운둔하며 그림을 그렸는데 캔버스가 아니라 벽에 놓았을 했죠. 기억을 잃더라도 내 손과 눈은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자유라며 이런 상황이 부럽다(?)는 그의 말에 마지막으로 궁금해지지 않던 질문을 건넸다. 선배 예술가인 안젤름 키파(b. 1945)의 수많은 작품 중 '오시리스와 이시스(Osiris and Isis, 1985~1987)'를 늘 '최애 작품'으로 꼽는 이유가 있느냐고. "뉴욕 모마(MoMA)에서 그 작품을 봤어요. 영문은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창피할 법한 상황이었는데도요. 당시 여자 친구가 그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지만 나도 모른다고 답했죠." 당시 스물여섯이었다고 말하는 그의 웃음 띤 동그란 얼굴을 마주하니 문득 '젊은 무라카미가 보고 싶어졌다. 글 고성연(홍콩 현지 취재)



# A Century of Grace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디자인은 브랜드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유산이 된다. 과거의 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의 가치 역시 말할 것도 없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펜디(Fendi)의 여성은 장인 정신과 혁신을 원칙으로 삼으며 현 세기까지 이어진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 도심에 자리한 펜디 하우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지향적 비전을 만나볼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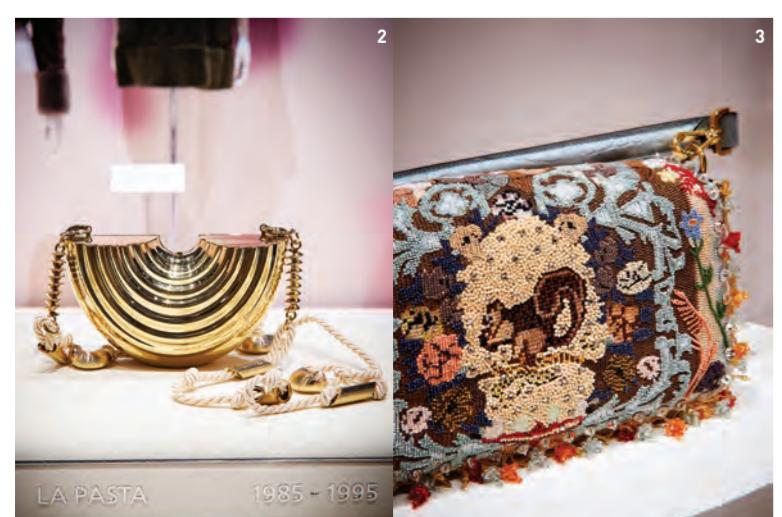


## 1백 년의 시간에 대한 경의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하는 펜디(FENDI) 뒤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헤리티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다”

가메나(Pergamena) 컬러의 크로커다일 레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닥터 백에서 착안했으며 1925년에 창립자가 처음으로 선보인 '아델 백', 펜디 디자인의 핵심인 듀얼리즘과 기하학적 미학을 담은 '피 카부 백' 등은 물론 1985년에 탄생한 '라 파스타 백'은 가장 특이한 형태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례 없던 새로운 백을 디자인하기 위해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로마를 산책하던 중 푸실리, 마카로니 등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를 구입했고, 이를 백 디자인에 녹인 것이다. 메탈 보디와 스트랩 등 셀 파스타의 세이프는 펜디 하우스 역사상 음식과 패션의 연결 고리를 만든 첫 시도였다고 한다. '메이드 투오더(Made-To-Order, MTO)' 프로그램 역시 전시 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인 이벤트였다. 메종의 장인 정신과 창의성, 숙련된 인하우스 장인들의 기술을 짐작한 것으로 소재 선택부터 디자인 까지 모두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 피카부, 바게트 백 등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을 선택하고 정교한 3D 자수, 교체형 핸들 등 익스클루시브 디테일을 더해 나만의 백을 완성할 수 있다. 메탈릭 그리네이션 효과를 적용한 이그조틱 레더, 스톤 텍스처의 크로커다일 레더, 아르데코 패턴을 표현한 링크 인레이 소재도 옵션으로 제공된다.

아이코닉한 백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퍼 컬렉션은 절제된 직선과 유려한 곡선의 조합, 풍부한 디테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토록 독창적인 디자인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10개의 퍼 작품을 선별했고, 이를 재해석한 리에디션과 함께 전시해 인상적인 광경을 선사했다. 퍼 컬렉션의 시초인 '컬러 페귄' 보며 재킷은 비버 퍼 소재에 레더를 더해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꼽히며 퍼에 대한 개념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아이템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 V자 형태의 퍼 디테일이 특징인 '아스투치오' 케이프, 정밀한 커팅 기법을 사용해 아스라이 퍼부를 드러내는 '레이스' 등이 있다. 퍼 컬렉션 역시 메이드투오더 가능하다. 링크부터 하이 퍼, 이그조틱 퍼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며,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패치워크 형식의 컬러 블록을 필두로 퍼를 활용한 기하학 및 플로럴 패턴은 펜디의 시그너처인 인레이 기법을 통해 정교하게 표현되어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하다. 퍼 소재의 기능과 실용적인 면을 넘어 창의적 디테일과 장식적 면모를 느낄 수 있다.



## 역사적인 메종, 그 찰나의 순간

펜디의 목적은 단지 패션을 선도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진정 즐길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매우 좁았던 만큼, 펜디의 이런 진보적인 정신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어느 브랜드와 견주어봤을 때도 가히 독보적이다. 메종의 유업을 지켜온 펜디의 여성에는 늘 도전적인 여성상이 깃들어 있으며 이는 디자인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1백 년이라는 펜디의 유구한 역사는 긴 세월에 비례해 기록할 만한 순간이 다수 존재한다. 펜디의 서사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랜드 창립자 아델 카사그란데 펜디(Adele Casagrande Fendi)와 에도아르도 펜디(Edoardo Fendi)가 로마 중심에 메종을 창립함으로써 펜디의 여정이 시작됐다. 브랜드의 첫 컬렉션으로 의미가 남다른 '셀러리아(Selleria)'는 오늘날까지 주요 컬렉션의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펜디의 엘로 컬리는 페르가메나라는 천연 파피루스 색상의 여행 가방에 적용되면서 시그너처로 자리 잡았다. 최고급 소재를 선별하는 안목과 시대를 아우르는 디자인에 대한 창립자의 저력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초이자 뿌리가 된다.

아델 카사그란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명의 딸 팔올라, 안나, 프랑카, 카를라, 알다를 회사 경영에 투입시키며 본격적으로 여성 중심의 가족 경영을 알린다. 5명 개개인의 독창적인 재능과 관점이 더해지니 획기적인 디자인과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 정립되었고, 이는 브랜드의 입지를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5명의 딸이 시사하는 바는 창립자의 가족 중심 사고와 최근 공개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대한 영감으로 세계관이 연결된다는 것. 1965년에는 메종의 전성기이자 전 환경을 알리는 2마이 열리는데, 당시 천재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와 만나 브랜드가 비약적으로 발전 한다. 그는 'Fun Furs'를 뜻하는 FF 로고를 디자인하고, 브라운과 토바코 컬러의 세로 줄무늬 패턴으로 구성된 페귄(Pequin) 로고를 내세운다. 메종 역사상 무려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그 와의 운명 같은 만남은 레디투웨어와 아이웨어를 탄생시켰고, 타임피스와 오프 쿠큐르 컬렉션까지 카테고리가 확장되었다. 무엇보다 '펜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모피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로열페밀리만의 특권이자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던 모피가 럭셔리 하우스의 전통적인 장인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조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탈바꿈되면서 모피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브랜드의 가장 상징적인 컬렉션과 작품이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건 펜디 가문의 3세대인 안나 펜디의 딸, 실비아 벤투리니 펜디(Silvia Venturini Fendi)가 합류하면서부터다. 그가 액세서리 부문을 맡은 직후에 펜디의 아이코닉한 바게트(Baguette)와 피카부(Peekaboo) 백이 세상에 알려졌다. 2020년에는 실비아 벤투리니 펜디의 딸이자 펜디 가문의 4세대 일원인 델피나 델레트레즈 펜디(Delfina Delettrez Fendi)가 주얼리 아티스틱 디렉터로 임명되면서 브랜드의 DNA와 핵심 코드를 결합한 새로운 시그너처, 펜디 오'락(Fendi O'Lock)을 선보인다. 칼 라거펠트의 FF 로고를 카라비너(carabiner) 형태로 재해석한 것으로, 그 전까지 메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래픽적 면모를 엿볼

1 아카이브 퍼 컬렉션과 리에디션을 교차 진열한 행사 내부. 2 라 파스타 백.

3 에도아르도가 아델 카사그란데에게 불인 별명에서 영감받아 완성한 디자인 모티브 '비게트' 백의 뒷모습.

4 1925년에 사용했던 디자인 칼 라거펠트와 펜디 메종.

5 1926년 로마 중심에 문을 연 최초의 펜디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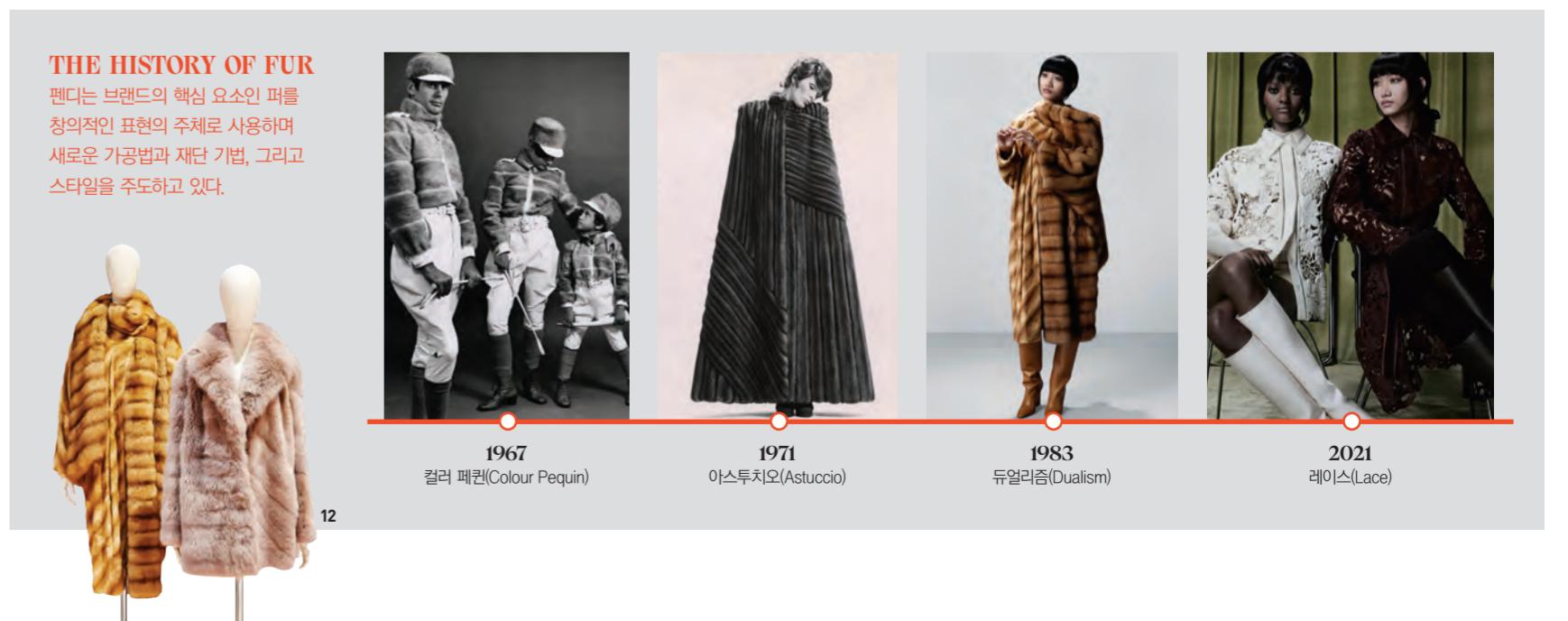
6 1933년에 선보인 페르가메나 컬리의 여행 가방.

7 1997년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와 창립자의 딸 5명이 함께한 모습.

8 컬러 페귄을 제작할 때 실제 사용한 스케치. 9 1971년에 제작한 아스투치오 케이프의 첫 디자인 스케치.

10 펜디의 역사와도 같은 10개의 백. 11 브랜드를 대표하는 인레이 기법을 적용한 퍼. 12 1983년의 '듀얼리즘과 2025년에 새로 제작한 모습.

수 있다. 또 그는 펜디의 첫 하이 주얼리인 '펜디 플라보스 파워(Fendi Flavus Parure)' 컬렉션을 2022 F/W 펜디 오프 쿠큐르 쇼에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펜디 트리피크(Fendi Triptych)' 컬렉션을 이어서 공개했다. 일반적인 커스텀 주얼리에 만족했던 펜디가 하이 주얼리를 새롭게 선보인 건 실로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 새로운 도전과 하이 주얼리의 탄생

화려함과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하이 주얼리는 원석의 선별부터 연마, 가공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손꼽히는 주얼리 하우스에서도 하나의 컬렉션을 선보이기까지 수년은 걸리니 말이다. 장인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로 빛은 하이 주얼리에 예술의 경지라는 표현을 기꺼이 쓸 수 있는 이유다. 펜디 패션 하우스 역시 하이 주얼리의 영롱함에 매료됐다. 펜디 가문의 4세인 주얼리 아티스트 디렉터, 텤피나 멜레트레즈 펜디가 커스텀 주얼리에서 하이 주얼리의 경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 첫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포문은 2022 F/W 펜디 오트 쿠튀르 쇼와 함께 시작됐다. 하이 주얼리에 대한 찬사로 시작된 이 여정은 〈2025 월드 오브 펜디〉 전시를 통해 한국에 첫선을 보이면서 이어진다. ‘2025 월드 오브 펜디’ 역시 멜파나 멜레트레즈 펜디가 디자인했으며, 로마를 향한 예찬을 담아 구성된다. ‘네무스’, ‘풀리아쥬’, ‘사파이어링’, ‘오니리코’, ‘마리아’ 등 모두 로마의 자연과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이번 컬렉션은 특히 화려함과 미나멀리즘이라는 양가적 디자인을 선택했고, 비정형적인 실루엣과 장인 정신의 조화로움이 보편적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하이 주얼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함을 선사한다. 몇 세대를 이어 내려온 메종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1974년 칼 라거펠트가 스케치한 펜디 자매 5명의 모습에서 영감받아 탄생했으며, 링 5개를 각각 다른 유색 보석으로 세팅해 특별한 피스임을 알린다. 이는 펜디 가문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 7 아델 카사그란데의 딸 5명을 의미하는 사파이어 링.
- 8 칼 라거펠트가 5명의 딸을 위트 있게 스케치한 그림.
- 9 딸 5명을 블루, 레드, 그린, 옐로 등 유색 사파이어로 표현했다. 10 엘로 사파이어를 링에 세팅하는 모습.
- 11 블루 사파이어 링.
- 12 침대 100주년 행사장에서 선보인 하이 주얼리. 13 트립티크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핑크 스피넬 다이아몬드 디아링.

## SYMBOL OF FAMILY

펜디 창립자 아델 카사그란데의 딸 파올라, 안나, 프랑카, 카를라, 알다를 형상화한 총 5개의 ‘사파이어 링(Le Cinq Doigts d'une Main)’을 소개한다. 각각 다른 다섯 자매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블루, 레드, 그린, 옐로 등 유색 사파이어로 표현했다. 2025 라디치로마네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란 걸 알리려는 듯,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부터 페어 컷, 바케트 컷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세공 기술을 적용해 입체적인 구조가 인상적이다.



## BLOOMING GREENERY

푸릇푸릇한 자연의 숭고함마저 느껴지는 ‘네무스(Nemus)’는 폴 파베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나뭇잎 모티브 사이로 환한 빛을 발하는 사랑과 생명의 상징. 그린빛 애메랄드가 특징이다. 네무스는 라틴어로 숲과 숲을 이루는 작은 나무를 말하는데, 주얼리에 생명력이 있든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네크리스, 이어링, 브레이슬릿으로 구성되었으며, 컬렉션 중 볼드한 피스에 속한다.

- 1 네무스 네크리스를 제작하는 과정. 2 볼드한 네무스 링.
- 3 애메랄드 원석을 포인트로 사용한 네무스.



## ARTISTIC RED

로마의 한적한 거리를 걷다 목도하는 덩굴 가득한 벽과 모자이크 타일에서 영감받았다. 식물과 나뭇잎을 뜻하는 ‘풀리아쥬(Foliage)’는 영감의 원천인 덩굴 모티브를 고스란히 담아 끊어질 듯 이어지는 반복적인 원형 실루엣이 특징이다. 투르말린 중 가장 희귀한 컬러로 알려진 분홍빛 투르말린을 선택해 호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네크리스, 링, 이어링, 브레이슬릿으로 선보인다.

## DYNAMIC SPARK

거친 듯 유려하게 흐르는 실루엣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잔잔한 파도가 떠오른다. ‘마리아(Marea)’는 폴 파베 세팅 기법을 적용해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든 빈틈없는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선사한다. 옐로, 핑크 골드로 만나볼 수 있으며 이어링과 링, 두 가지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컬렉션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이뤄 역동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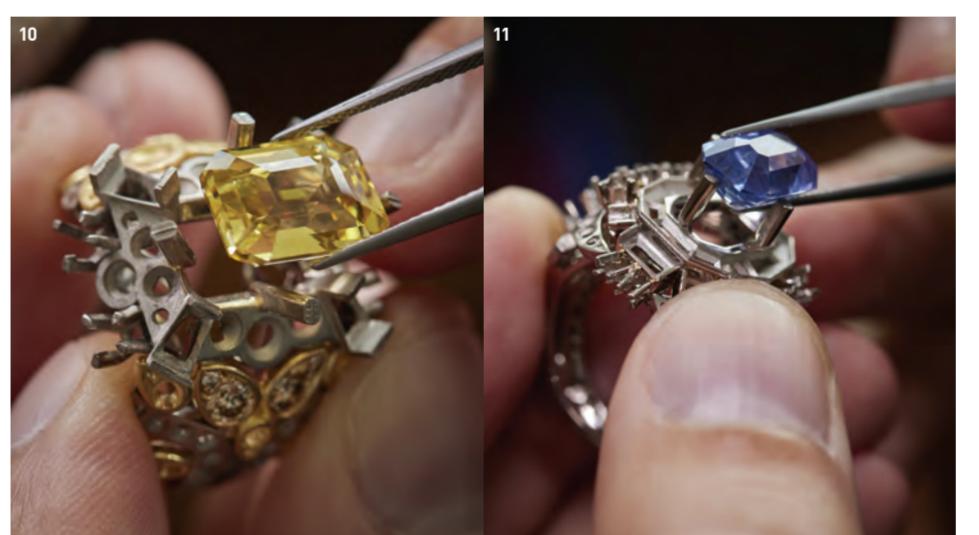
## SOFT &amp; PURE

꿈을 뜻하는 ‘오니리코(Onirico)’는 펜디 패션 하우스의 DNA를 엿볼 수 있는 하이 주얼리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FF 모티브가 비정형적으로 원을 그리는 모습이 마치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방울의 모습 같다. 잔잔하게 흐르는 곡선의 부드러움을 폴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표현해 주얼리 고유의 순수한 모습이 돋보인다.

에디터 김하안



- 4 폴리아쥬는 로마의 덩굴 가득한 벽과 모자이크 타일에서 영감받은 동근 실루엣이 특징이다.
- 5 글래머스한 폴리아쥬 네크리스.
- 6 화이트 & 옐로 골드에 희귀한 분홍빛 투르말린을 세팅한 폴리아쥬 브레이슬릿.





# The Art of Travel

여행자의 완벽한 여행을 위해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 향상에 주력하는 투미가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캠페인

'Made for You Since 1975'를 공개하며, 견고하게 쌓아온 브랜드의 혜리티지와 그 속에서 호기롭게 등장한 전 제품을 탐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50주년이라는 영광스러운 신에 빠질 수 없는 투미의 수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빅터 산즈(Victor Sanz)와

아시아페시픽 & 중동 지역 헤드 아리스 마루리스(Aris Maroulis) 부사장을 만나 감회를 물었다.

## 기념비적인 50주년을 위하여

투미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팝업 이벤트를 개최했다. 과거를 복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요소를 결합해 브랜드 스토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팝업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브랜드의 전 제품을 전시한 것 만이 아니다. 오로지 투미만을 위해 사진을 크리스토퍼 앤더슨과 감독 임경란이 만나 50주년을 기념하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리스본을 배경으로 투미의 제품과 이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빅터 산즈는 캠페인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창립 50주년을 맞이

해 투미의 초석이자 핵심 컬렉션을 재조명하며 브랜드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브랜드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꾸준히 진화하는 브랜드의 저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고객들의 공감을 얻고 싶었고요. 지난 50년 동안 이어온 제품의 높은 내구성, 편리성, 그리고 혁신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미래의 여행자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한편 아리스 마루리스 부사장과 함께 글로벌 앤 버서터 배우 문기영이 50주년 팝업 현장에 참석해 자리 빛났었다. 이날 문기영은 미니 블랙 드레스에 투미의 신제품인 '엑스 미니 트레이닝 케이스 코스메틱 백'을

**50주년 팝업 행사는 핵심 컬렉션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꾸준히 진화하고 성장하는 투미의 저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 더 완벽해진 라인업

시대를 막론하고 '여행'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의미를 찾고자 한다. 누군가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자극을 받기 위해. 일찍이 여행의 중요성을 헤아린 투미는 번세기 동안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안전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여행 제품을 디자인해왔다. 지난 50년간의 노하우가 반영된 소재 개발은 물론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적 미감을 발휘하는 중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컬렉션이 바로 '19 디그리 라이트(19 Degree Lite)'다. 투미의 시그너처인 19 디그리 디자인에 테그리스(Tegris) 소재를 결합해 무게는 낮추고 내구성은 높여 하드사이드 컬렉션을 완성했다. 마그네슘 텔레스 코프 핸들과 무소음 휠을 장착해 구동성이 뛰어나며 TSA 조합 자물쇠를 더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내부에는 오염에 강한 열 라이내이트 스토리 패치를 더한 듀얼 커튼 수납공간을 추가해 실용성까지 놓치지 않았다. 블랙 그라파이트, 블러시, 티타늄 그레이, 코발트, 엠버 등 총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기내용, 단거리 여행용, 장거리 여행용 등 여행 기간에 따라 세분화된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다.

사진: 정현우

## INTERVIEW Aris Maroulis

아시아 태평양 & 중동 지역 총괄 대표  
아시아 태평양 & 중동 지역 헤드, 아리스 마루리스  
부사장은 1시간 남짓의 인터뷰 내내 투미라는 브랜드의 고유성, 여행에 대한 탐구 정신, 그리고 한국 시장의 가치를 여러 번 강조했다.

② 한국행 비행기에 실은 여행 가방이 궁금하다. 알파 브라보 컬렉션의 '노마디 백팩'과 '19 디그리 라이트'의 기내용 클리어이다. 백팩의 클래식한 외관도 좋았지만, 업무에 필요한 필수품을 잘 정돈할 수 있는 수납공간 구성에 마음을 뺐다. 19 디그리 라이트는 무게가 2.9kg밖에 안 된다. 더 말할 필요가 있나. 나처럼 가볍고 견고한 캐리어를 선호하는 이에게 강력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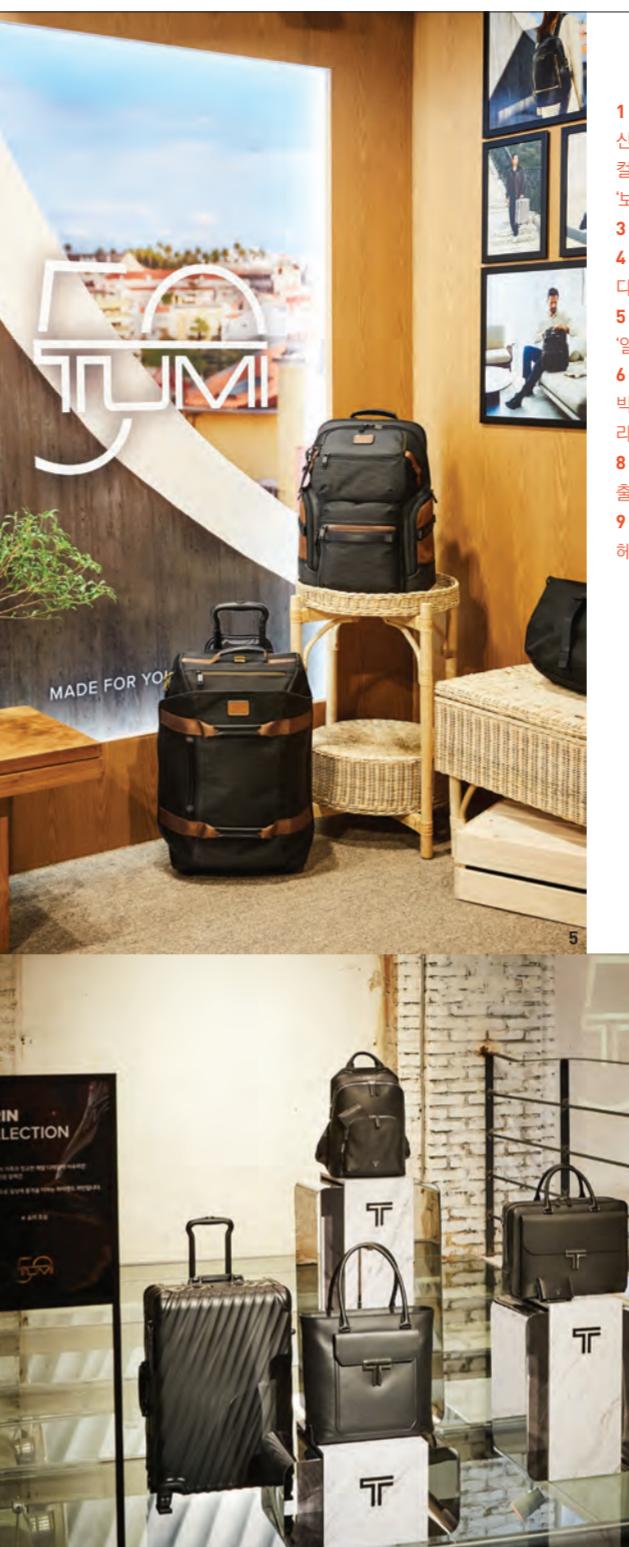
③ 아시아 태평양 & 중동 지역에서 브랜드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나?

투미에 힙하기 전, 투미의 우수한 디자인과 뛰어난 제품 성능, 그리고 고객 중심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이 강점을 슬로건 삼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침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봄 시즌 컬렉션과 함께 투미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

④ 한국 럭셔리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은? 한국 소비자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안목이 높다. 브랜드의 장인 정신과 품질, 디자인까지 놓치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에 감동하고 할 수 있다. K-컬처의 영향으로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기도 하다. 한국인의 문화, '빠름'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다.

⑤ 매장을 브랜드를 대표한다. 새로운 국가에 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투미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게기가 되었다. 1975년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해 뛰어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단지 과거 성과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번 50주년을 발판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꿈꾸기 때문이다. 에디터 김하안



- 1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신제품 '19 디그리 라이트' 컬렉션
- 2 실용성이 돋보이는 '보이저 컬렉션'
- 3 모노 그램 바
- 4 키 링부터 지갑까지 다채로운 액세서리 라인
- 5 블랙 옥스 컬러를 입은 '알파 브라보' 컬렉션
- 6 두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빅터 산즈, 7 투미의 프리미엄 라인, '투린 컬렉션'
- 8 총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는 '19 디그리 라이트'
- 9 아시아 태평양 & 중동 지역 헤드 아리스 마루리스 부사장



## INTERVIEW VITOR SANZ

TUMI를 한 단어로 정의해달라는 말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빅터 산즈는 '최고 수준(best-in-class)'이라 답했다. 제품 품질과 성능 면에서 절대 타협이 없다는 그를 통해 투미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① 왜 '여행'인가 예부터 사람들은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모험하고자 했다. 이런 도전적 본능은 현대에는 여행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여행은 목적 지향적 이기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여행지에 도착하기까지 편리성을 극대화해 온전히 여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 사명이다 투미가 존중하는 이유다.

② 제품 개발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보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 카테고리를 확장·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여행 패턴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개발한다. 이러한 '고객 중심(customer-centric approach)' 마케팅은 여행을 넘어 스포츠, 여성 컬렉션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덕분에 헤어, 아이웨어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다.

③ 기능성, 내구성, 디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기능성, 내구성, 디자인은 상호 보완적 관계다. 말 그대로 '좋은' 제품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핵심 요소의 밸런스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브랜드를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

④ 지금은 캐리어를 중심으로 컬렉션을 완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 카테고리를 확장하거나 도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 캐리어뿐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창의적 작업에는 디자인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찾은 노하우는 디자인, 무게, 내구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철저한 테스트와 재설계 등을 반복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끊임없는 개선을 시도한다.

⑤ 수많은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가장 애착이 가는 컬렉션은?

알파 브라보(Alpha Bravo) 컬렉션이다. 실제로 내가 출근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백팩(Navigation Backpack)'은 스케치북, 스케치 도구, 선글라스, 충전기, 이어폰 등을 넣어도 형태의 변형 없이 완벽한 수납이 가능하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애착 가방이라고 할까.(웃음)



⑥ 마지막으로 투미의 미래를 그려보라면?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조금의 타협도 허용할 수 없다. 새로운 소재 개발과 스마트 기술 적용, 여기에 신선한 시각을 더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넘어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자신이 있다. 우리는 이미 지금적인 발전과 목적이 뚜렷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일상을 넘어 세계를 넘나드는 여행을 하고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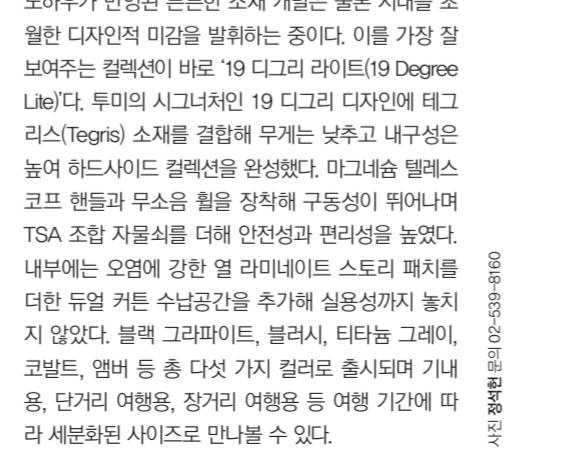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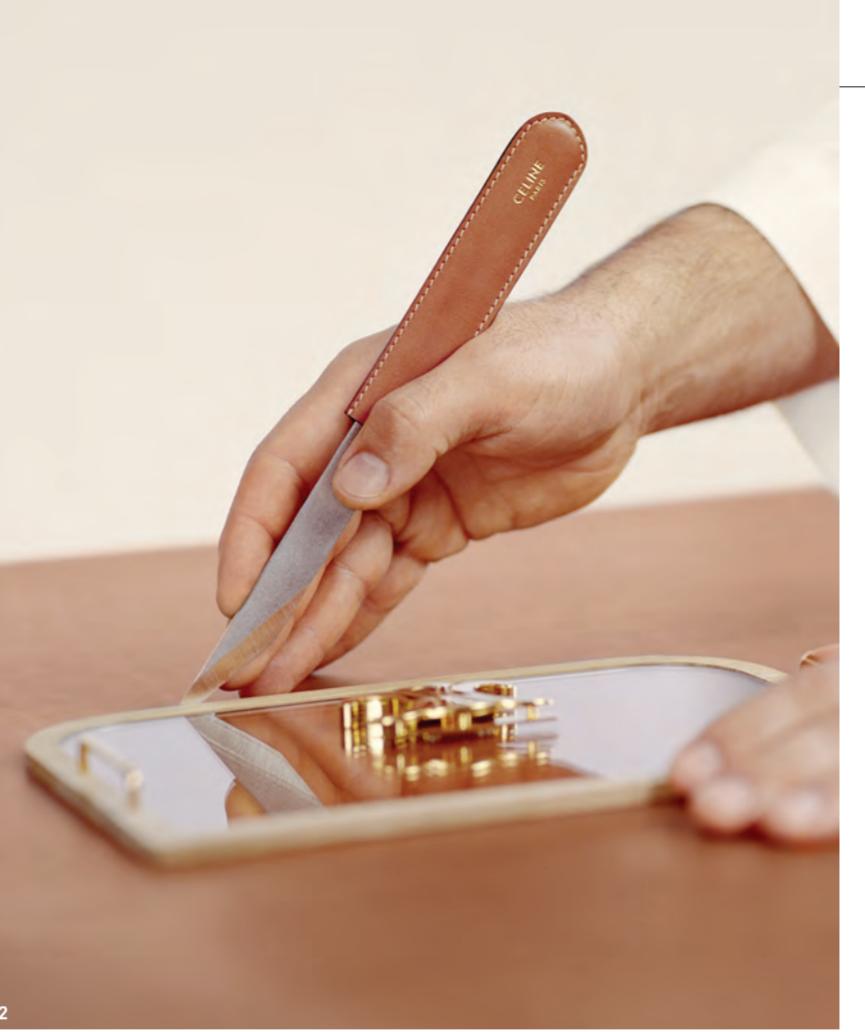


사진: 정현우



# Savoir-Faire

셀린느의 가죽 제품은 매종 특유의 프렌치 감성을 잘 표현한다. 이는 고유의 디자인적 매력뿐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온 장인 정신이 뒷받침된 가죽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셀린느 매종은 프렌치 정신이 깃든 탁월한 가죽 제품을 만들어낸다. 특히 셀린느의 모든 핸드백은 쿠튀르 하우스의 미학적 코드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셀린느 가죽 제품의 독특한 매력은 가능한 디자인과 시간을 초월하는 장인 정신에 기초한다. 1906년대 셀린느 비파아나는 첫 번째 셀린느 가죽 제품 컬렉션을 구성하며 그녀의 유명한 파리자랑 스타일과 높은 수준의 장인 정신을 아울렀고, 이 기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셀린느의 가죽 제품은 가죽 공방을 일컫는 '마로퀴네리(maroquinerie)'에서 제작된다. 이곳은 셀린느의 장인이 손으로 펼쳐내는 직관, 그리고 최신 기술의 정밀성이 발휘되는 곳이다. 몇 세대로 걸친 경험으로 숙련된 작업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적용해 최상급 소재로 제품을 제작해왔으며, 이는 셀린느 가죽 제품의 높은 품격으로 이어져 셀린느가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셀린느의 아이코닉한 백인 트리옹프 백에서는 이처럼 전통 깊은 가죽 제작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다. 셀린느 가죽 제품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트리옹프 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1970년대 로고를 재해석한 트리옹프 클래스프다.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갖춘 클래스프는 2개의 부분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띤다. 클래스프 윗부분에는 셀린느 로고를 각인해 아이코닉함을 더했다. 여기에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소가죽의 특성을 활용해 내부를 아코디언 스타일의 포켓으로 완성했다. 이는 백의 형태는 유



1 셀린느 틴 트리옹프 백이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모습.  
2, 4 가방의 앞면에 해당하는  
가죽을 재단하는 모습.  
3, 5 셀린느 가죽 제품을  
다루는 장인의 전문 도구.  
6 셀린느 클래식 트리옹프  
백 사이니 카프스킨 아마존.  
7 셀린느 클래식 트리옹프  
백 내추럴 카프스킨 텐.  
8 셀린느 틴 트리옹프 백 사이니  
카프스킨 라이트 베건디.  
9 셀린느 클래식 트리옹프  
백 나이ل 악어 블랙.

지하면서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수납할 수 있도록 돋는다. 가죽의 선별부터 공정까지 이 모든 과정은 장인의 전문적인 손길에서 탄생하며 때문에 최상의 완성도를 자랑한다. 트리옹프 백뿐 아니라 셀린느의 가죽 제품은 늘 최상의 재료, 그리고 세심한 장인의 정교함 덕분에 오랜 수명을 유지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고유성과 매력을 온전히 드러내 창의성과 기술력에 대한 셀린느의 진심과 혁신을 보여준다.

문의 1577-8841 에디터 성정민



# New Modernism

'일상의 순간을 특별함으로.' 래트(LATT)는 선구안적 태도로 현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어가고 있다. 유려한 디자인과 다채로운 컬러 스펙트럼 속에서 새롭게 정의한 정제된 실루엣은 나이를 불문하고 이 시대 모든 여성의 취향을 관통하는 중이다. 북유럽 감성을 더하고 복잡한 디테일을 말끔히 털어내 브랜드 고유의 미니멀함을 더욱 강화했다.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모던함을 품으니 래트의 행보가 더욱 미더울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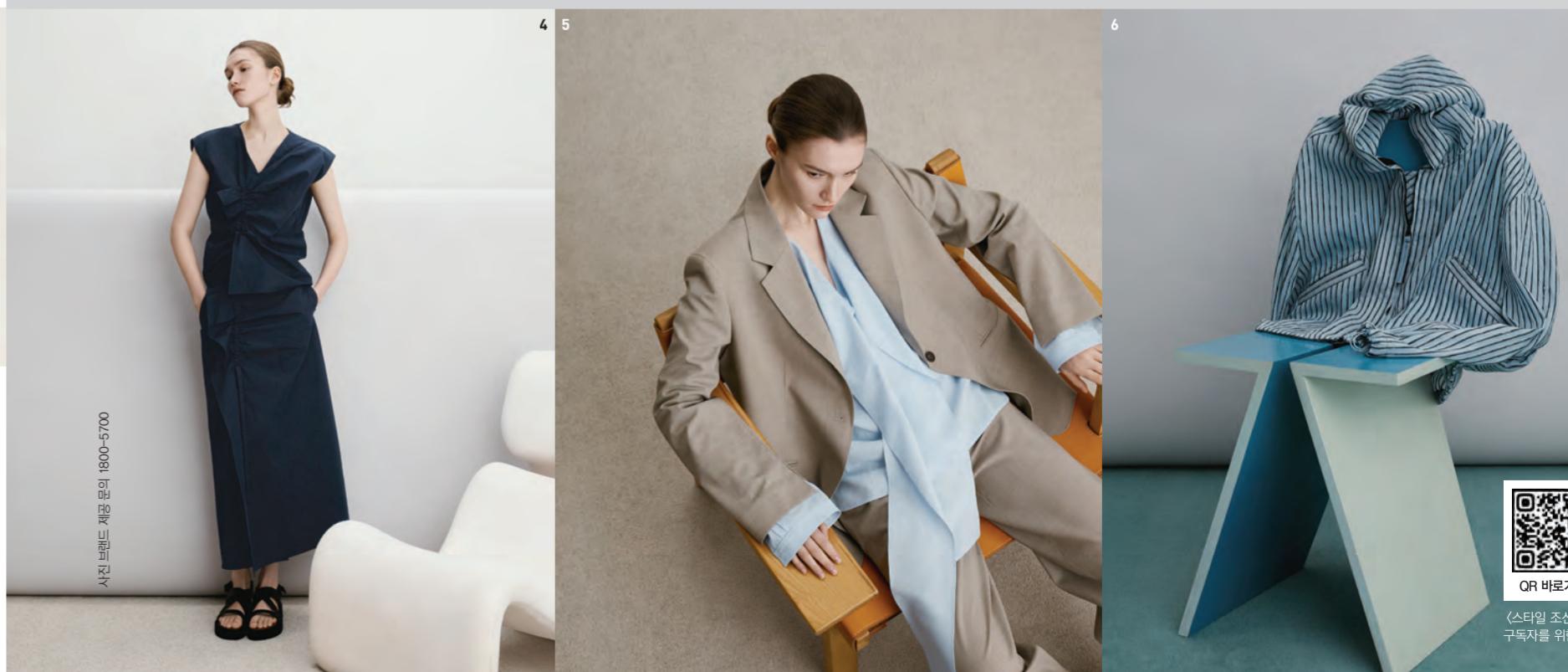


사진 트리뷴드 제공 | 문의 080-5700



QR 바르기

(스타일 조선일보)  
구독자를 위한 쿠폰

1 앞뒤로 입을 수 있는 코튼  
톱 가격 미정. 2 소가죽 소재  
볼큐브 투웨이 백 36만5천원,  
태슬 참 모카신 34만5천원.  
3 토끼라 버스켓 백 36만5천원.  
4 크링클 디테일의 드로스트링  
톱 37만5천원, 드로스트링  
패널 스커트 42만5천원.  
5 을 소재 오버사이즈 재킷 74만  
5천원, 타이 스트랩 안밸런스 톱  
47만5천원, 을 소재 밴딩 와이드  
팬츠 44만5천원. 6 스토라이프  
패턴의 후드 점퍼 67만5천원.  
모두 래트. 에디터 김하연



**TIFFANY & CO.**  
볼드한 감성을 자랑하는 18K  
로즈 골드 소재 시그너처 케이지  
링크 1개에만 다이아몬드를 봄에  
세팅해 유니크한 감각을 더한  
티파니 하드웨어 스몰 링크 링 가격  
미정 티파니. 문의 1670-1837



**TOD'S**  
부드러운 가죽을 접은 클리치  
형태의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백으로 바리타 액서서리  
클로징이 포인트를 부여하며 간결한  
우아함을 전하는 클리치 백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38-6008

# Get The List



**RALPH LAUREN COLLECTION**  
자동차 디자인에서 영감받은  
섬세한 디테일을 바탕으로  
탄생한 새로운 핸드백 라인으로  
이탈리아의 정인 정신이 살아  
있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송이지가죽으로 제작했으며,  
베티지 자동차 핸들에서  
따온 수제 버클과 메탈  
손잡이가 포인트인 더 랄프  
토트백 5백5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CHANEL WATCHES**  
지름 38mm의 견고한 블랙  
세라믹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18K 로즈 골드 라이닝과 숫자  
인디케이터로 특별한 감각을  
불어넣은 J12 위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문의 080-805-9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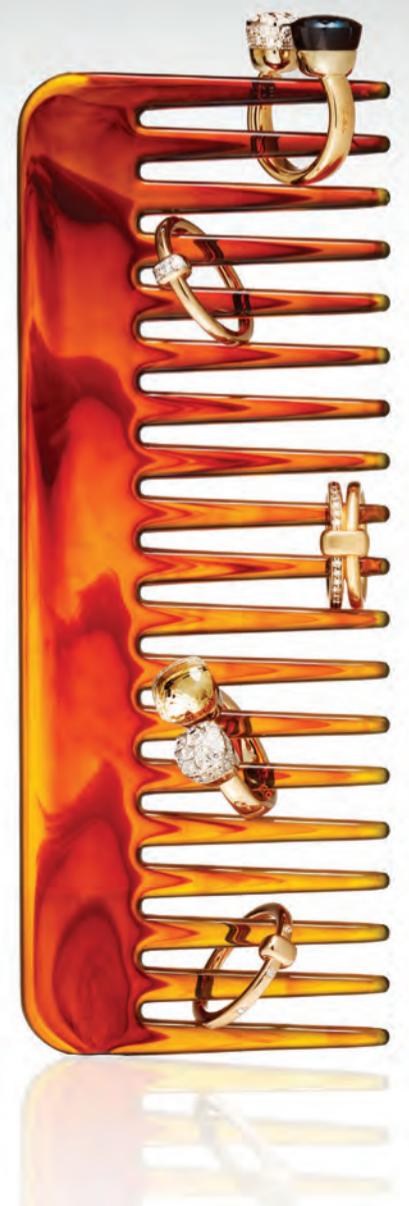
**MONTBLANC**  
트렌디하고 우아한 카시스 컬러  
레더 소재와 베티지한 감성을  
전하는 필라동 마감 처리의  
몽블랑을 새길 칭송장지가  
돋보이는 모던한 매력의  
마이스터스 페인처 백  
2백22만원 풍블랑  
문의 1877-5409



**BLANCPAIN**  
정교한 디자인과 특허 받은 블랙  
세라믹 케이스, 브레이슬릿으로  
강인형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워치로 그려져 다이얼이  
사선을 사로잡는 43.6mm  
사이즈의 바이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즈 3천7백만원대  
블랑팡. 문의 02-3479-1833



**LATT**  
고급스러운 질감의 소가죽 소재를  
사용해 섬세하게 디자인한 토트백.  
상단 지퍼 플리에 노트 스트랩과  
메탈 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베이식한 디자인과 깔끔한 슬리드  
걸러로 포멀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볼큐브 투웨이 백  
36만5천원 래트.  
문의 1800-5700



**POMELLATO**  
(위부터) 약 9캐럿의 런던 블루  
토파즈 1개와 총 약 0.8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39개를 세팅한  
로즈 골드 누도 뚜아 에 무아  
링, 3개의 다이아몬드를 벤드  
중심에 포인트로 세팅한 18K  
로즈 골드 투게더 링, 36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더블 벤드 투게더 링,  
약 9캐럿의 화이트 토파즈와  
39개의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로즈 골드 누도 뚜아 에 무아 링,  
9개의 다이아몬드를 루치올레  
세팅으로 완성한 18K 로즈  
골드 투게더 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에디터 성경민

light

into

the

눈부신 햇살 속, 남다른 오라의 그녀와 만나다. PHOTOGRAPHED BY JUNG JIEUN



데님 트렌치코트 4백만원대, 바스크 진 2백만원대, 라미네이티드 가죽 소재 인프라디토 샌들 2백만원대 모두 알라이아.

블랙 더블브레스트 재킷, 이브닝 셔츠, 크롭트 테일러드 팬츠, 블랙 & 화이트 크로우, 체인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맥퀸.



폴리아미드 소재의 드레스 2천4백만원대, 비스코스 틈 2백만원대, 쇼츠 1백만원대, 램 스키н & 브라스 소재의 이어링 90만원대 모두 펜디. 블랙 페이턴트 샌들 가격 미정 틈 포드.

레더 소재의 보머 재킷, 페이즐리 실크 소재의 블라우스, 러플 스커트, 글라스·우드·레진·메탈 소재의 비즈 네크리스, 골드 뱅글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가렐로.



비대칭 미니드레스 2백9만원, 블루 컬러 물 가격 미정, 드레이프 뱅글 69만원 모두 페라가모.



실크 모슬린 케이프, 코튼 소재 틈, 데님 팬츠, 패브릭 & 그로그램 메리제인, 메탈 & 글라스 필 & 스트리스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레드 브라 톱, 그레이 음 크루넥 스웨터, 사이니 레더 스커트, 블랙 코튼 브리프, 메탈릭 토탈 세단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드롭 요크 재킷, 원 레그 팬츠, 슬링백 펌프스, 에얼룸 펜던트 이어링, 미드나잇 펄 소트와르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브랜드 레터링 로고를 수놓은 코튼  
티셔츠 가격 미정 **더블 맨** 문의  
02-3280-0104. 음각 처리한  
모노그램 패턴이 특징인 스웨이드  
소재 트랙수트 재킷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 Spring Standard

세계절의 '신상'만큼은 놓칠 수 없다. 잘 재단된 테일러드 재킷부터 편안한 데님 재킷, 스포티한 점퍼까지, 봄 스타일링의 지침서가 되어줄 남자 아우터 4.

PHOTOGRAPHED BY PARK JAEYOUNG

볼드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코튼 셔츠  
2백27만원, 간결한 더블브레스트  
테일러드 재킷 3백90만원 모두  
돌체앤기바나. 문의 02-3442-6888



더블 G 로고를 더한 데님  
재킷 가격 미정 **제작**.  
문의 02-3452-1921  
에디터 김하얀

더블브레스트 디자인에 바이커  
벨트를 기미해 색다른 멋을 제안하는  
램 스킨 소재 쇼트 트렌치코트  
8백60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아트 워크'에 머무는 로즈우드 홍콩(Rosewood Hong Kong)

## 장밋빛 노을과 푸르른 항구의 축복

빅토리아 하버를 두고 홍콩 섬 건너편 구룡반도의 인기 지역인 침사추이에는 언젠가부터 여행자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손꼽히는 력셔리 호텔이 있다. 가슴이 탁 트이는 '파노라마 뷰'로 홍콩의 상징적인 항구를 감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로즈우드 홍콩(Rosewood Hong Kong). 홍콩의 문화 예술을 가장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봄날(2019년 3월) 문을 연 이 호텔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한데, 팬데믹 여파로 상당 기간 해외 방문객들을 거의 맞이하지 못했지만 2년 전부터 '하늘길'이 다시 자유롭게 열리면서 해가 갈수록 치솟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올봄에는 다국적 인파가 모이는 행사가 여기저기에서 펼쳐지면서 열기 가득한 풍경이 호텔을 감쌌다.



**1** 홍콩 구룡반도 침사추이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로즈우드**  
홍콩이 하늘 풍경을 수놓고 있다.  
**아시아 대표 부호 행(Cheng)**  
집안이 이끄는 뉴월드 그룹이  
추진한 침사추이 일대의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 봄  
태어났다. **2** **로즈우드 홍콩의**  
**'그랜드 하버 뷰 칭' 객실. 80%**  
**기쁨과 쾌락의 객실이 시원한 '하버**  
**뷰'를 품고 있다. **3** **챙 집안의**  
**소장품으로 영국 스타 아티스트**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 'Zodiac'**  
**시리즈'가 걸려 있는 티 라운지**  
**버터플라이 룸. **4** 3월 말 아트**  
**바젤 홍콩 기간에 원차이의**  
**전시장과 호텔을 오가는**  
**'프라이빗 퍼트' 서비스는 교통**  
**체증을 잊게 해준다. Photo by**  
**고성연** **5** **인도와 이웃도어를**  
**아우르는 방대한 면적(3,716㎡)**  
**을 뿐만 아니라 웨일스 센터 아시아**  
**홍콩은 삼선의 균형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6** **아시아 베스트 바(bar)로 선정된**  
**칵테일 바로 라이브 재즈를 즐길**  
**수 있는 디크사이드(Darkside)의**  
**운치 있는 인데리아. \* 1~3, 5, 6**  
**이미지 제공: Rosewood Hong Kong**  
글 고성연(홍콩 현지 취재)**





**NEW LIPSTICK**

나스 익스플리시 립스틱 #382 데카덴스 로즈힙 시드 오일과 히알루론산 성분을 함유해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컬러 지속력도 좋아

자주 손이 간다. 3.8g 5만2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 Editor's Pick

4월은 건조한 날씨에 푸석해진 피부와 머릿결에 영양을 채우고 싱그러운 봄 내음을 더하는 시간.

PHOTOGRAPHED BY YOUNG JI YOUNG



**NEW CANDLE**

트루동 클래식 캔들  
알타이르 섬세한 플로럴  
향에 은은한 나무 향을 더해  
향긋하면서도 묵직한 향기를  
선사한다. 270g 17만원.  
문의 02-6905-3324  
\_by 에디터 성경민



데코르테 미모사 솔리드 퍼퓸  
부드럽고  
잔잔한 미모사 향이 요즘 날씨랑 잘  
어울린다. 고체 퍼퓸으로 부드럽게 발리며  
한 손에 쥐어지는 양증맞은 사이즈가 특징.  
2g 6만9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신정임

**NEW EYE CREAM**

발봉 바이탈 컨투어 크림  
야근으로 다크서클이 길어질 때마다 사용해보니 눈 밑이 제법 환해졌다. 웃을 때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눈가 주름도 함께 열어진 듯. 눈가 피부가 고민이라면? 적극 추천! 15ml 27만원. 문의 070-4352-5203  
\_by 에디터 김하얀



1 몽블랑 '비스포크 납' 출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몽블랑이 사용자의 필기 습관에 맞춘 만년필 납 '비스포크 납'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필기 속도와 펜을 잡을 때의 기울기, 선호하는 님의 굽기 등 개개인의 필기 습관을 고려해 맞춤형 납을 추천·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수준 높은 글쓰기 경험을 선사한다. 문의 1877-5408

2 샤넬 25 핸드백 캠페인 모델 제니 베탁 샤넬에서 2017년부터 앰배서더로 활동해온 글로벌 팝 가수 제니를 샤넬 25 핸드백 캠페인 모델로 발탁했다. 세계적인 광고 영상 감독 고든 본 스타이너 (Gordon von Steiner)가 샤넬 25 핸드백의 높은 활용도와 다양한 스타일링을 뉴욕의 거리를 담은 짧은 유튜브비디오를 보는 듯한 캠페인 영상으로 표현했으며, 자유로움과 공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했다. 문의 080-805-9628

3 래트 스웨이드 태슬 참 모카신 북유럽의 라이프 스타일과 빛에서 영감받은 브랜드 래트에서 스웨이드 태슬 참 모카신을 선보였다. 태슬 디테일과 로고 엠블럼 참 장식이 돋보이며, 신발 윗부분과 인창 아랫부분을 이어주는 박음질을 통해 주머니 모양으로 만드는 볼로니아 공법을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문의 1800-5700

4 로에베 <크래프티드 월드> 전시 도쿄 개최 로에베에서 순회 전시로 기획된 <크래프티드 월드 (Crafted World)> 전시를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3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스페인 왕실

7 셀린느 룰루 백 셀린느에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룰루 백을 제작한다. 결이 살ا 있는 최상급 레더로 제작했으며, 셀린느 레더 제품에서 볼 수 있

는 손-백 테크닉(뒤집어 훠매기)을 적용해 입체적이고 둥그스름한 형태가 특징이다. 블랙·라이스·글레이서 컬러와 트리움프 캔버스 소재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반다나 아이템이나 품목 키링을 매치해 매력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문의 1577-8841

6 투미 알파 브라보 컬렉션 퍼포먼스 럭셔리 브랜드 투미가 알파 브라보 컬렉션을 제작한다. 우아한 블랙과 부드러운 브라운의 조합에 새롭게 선보이는 블랙 오닉스 컬러로 제작했으며 나일론, 폴리우레탄 등 고성능 섬유로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넉넉한 수납공간이 특징인 서지 백팩과 아웃도어를 모티브로 제작한 리저브 백팩, 노마드 백팩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39-8160

8 디올 <크리스찬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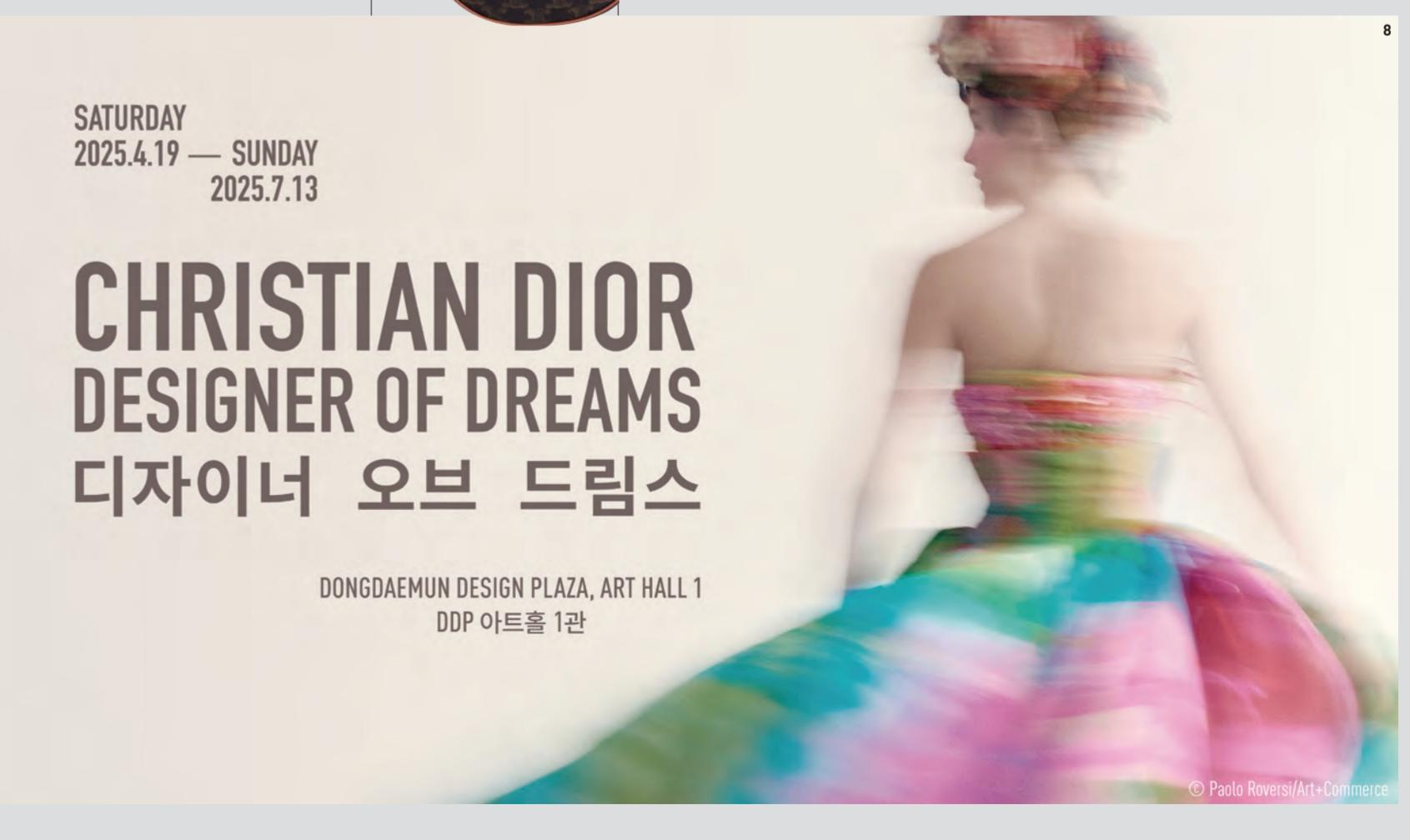
전시회 파리 장식미술관을 시작으로 런던, 상하이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크리스찬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전시회가 4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 한국의 상징적인 아티스트가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며 레이디 디올(Lady Dior)만을 위해 마련된 매혹적인 전시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

\* 입장권은 2025년 4월 2일부터 디올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www.dior.com/ko\_kr/fashion/designer-of-dreams

SATURDAY  
2025.4.19 — SUNDAY  
2025.7.13

## 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DONGDAEMUN DESIGN PLAZA, ART HALL 1  
DDP 아트홀 1관



© Paolo Roversi/Art+Commerce

끌드뽀 보떼 2025  
러브 컬렉션 레디언트  
쿠션 파운데이션 데이  
리미티드 케이스 프랑스  
아티스트 듀오 알렉스 &  
마린과 협업해 운명의  
붉은 실, 끌드뽀  
보떼의 열쇠를 모티브로  
탄생시킨 케이스가  
특징이다. 케이스  
4만5천원대, 리필  
9만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NEW PERFUME**

조 말론 런던 비치 블로썸  
코롱 싱그러운 라임과  
코코넛 워터 향, 따뜻한 통카  
빈이 어우러지니 아지수로  
돌리싸인 해변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다. 100ml  
24만5천원. 문의  
02-6971-3228  
\_by 에디터 김하얀

(주)한국디올 '2025 디올 런던 전시회' '2025 디올 런던 전시회' '2025 디올 런던 전시회'



RALPH LAUREN